

내국인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선교적 이해

이슬람의 한국 선교 (Dawah): 어제와 오늘

Missiological Understanding of Islamic Dawah in South Korea : Past and Present Korean Muslim Community

저자
(Authors) 박성수
Sung Su Park

출처
(Source) [Muslim-Christian Encounter 10\(1\)](#), 2017.03, 133-171(39 pages)

발행처
(Publisher)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이슬람연구소](#)
TORCHTRINITY Center for Islamic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79480>

APA Style 박성수 (2017). 내국인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선교적 이해. Muslim-Christian Encounter, 10(1), 133-171

이용정보
(Accessed)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220.67.255.***
2021/02/09 14:56:49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내국인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선교적 이해

- 이슬람의 한국 선교 (Da'wah): 어제와 오늘 -

박성수*

- I. 서론
- II. 이슬람의 한국 선교: 어제(past)
- III. 이슬람의 한국 선교: 오늘(present)
- IV. 21세기 내국인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선교적 이해
- V. 나가는 말

*감리교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

I. 서론

2001년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을 배후로 한 탈레반(Taliban) 무장 단체의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및 펜타곤(the Pentagon) 공격은 약 3,000여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내면서 이슬람에 대한 극도의 부정적 이미지를 양산했다. 뿐만 아니라, 이 테러 사건과 관련하여 이슬라모포비아(Islamophobia)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9/11 테러가 선교적 종교(Missionary religion)인 이슬람에게 부정적 영향만 끼친 것은 아니다. 미국의 저명 리서치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에 의하면, 9/11 직후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미국인들 60% 이상이 이 테러 사건 이후 이슬람과 아랍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가 과거에 비해 급증했다고 응답했다.¹ 9/11 이후 봇물처럼 쏟아진 이슬람 관련 서적들은 ‘이슬람, 무슬림, 아랍, 테러’ 등의 키워드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무슬림 학자 이희수 역시 2001년 9월 『이슬람:9/11 테러와 이슬람 세계 이해하기』를 시작으로,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린이 이슬람 바로 알기』(2001) 그리고 『이슬람 문화』(2003) 『이희수 교수의 세계 문화 기행』(2003) 등 다수의 저작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 낯선 아랍의 종교, 이슬람을 친숙하게 하는데 일조했다.² 이희수는 그의 저서에서 9/11 테러의 희생자들을 향한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이 일을 주도한 주범들이 이슬람 신앙의

1 김수완, “한국인의 아랍, 이슬람 이미지 및 관련 언론보도 인식 연구,” 『한국 중동학회 논총』 vol. 57 (2016, 06): 194.

2 이희수 외 11명, 『이슬람: 9/11 테러와 이슬람 세계 이해하기』(서울: 청아 출판사, 2001); 이희수, 『어린이 이슬람 바로 알기』(서울: 청솔 출판사, 2001); 『이슬람과 문화』(서울: 살림, 2003); 『이희수 교수의 세계 문화 기행』(서울: 일빛, 2003).

정통성에서 벗어난 이단들이라며, 그 선을 명확하게 그었다. 오히려 이희수는 이에 대한 미국의 폭력적 보복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슬람 신앙 근본은 테러가 아닌 평화를 지향한다고 독자들을 설득한다.³

9/11 테러 이후 이희수 외에 이원삼, 최진영, 유왕중, 연구석 등 다양한 무슬림 학자들은 학문적 접근을 통해 한국 사회에 ‘이슬람 바로 알리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6월 29일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Abu Bakr al-Baghdadi)의 Islamic state 설립 선언과 함께 그를 추종하는 무적 단체들이 본격적인 테러 활동을 시작하자, 한국 이슬람 학자들의 그간 노고(勞苦)는 수포(水泡)로 돌아갔다. IS의 테러에 대해 한국 무슬림 학자들은 이슬람과 IS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지만,⁴ 한국 대다수의 국민들은 IS를 이슬람의 한 지류로 이해하고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무슬림을 향한 혐오적 태도를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다.⁵ 특히 기독교인들 중 이슬람 선교 전문가로 자처하는 이혜훈, 이만석, 유해석 등은 강연과 대중 매체를 통해 이슬람의 극단적 배타성과 지하드 개념에 기초한 무슬림들의 폭력적 행위를 고발하며, 이슬람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대화 하고 있다.⁶ 그 결과 오늘날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 이슬람은 여전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종교로 인식되고 있다.

3 이희수 외 11명, 『이슬람: 9/11 테러와 이슬람 세계 이해하기』, 17-46.

4 서정민, 『이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서울: 시공사, 2015);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IS를 말하다』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5); 이희수, 『이슬람 학고 1, 2』 (서울: 청아, 2015).

5 김수완, “한국인의 아랍, 이슬람 이미지 및 관련 언론보도 인식 연구,” 206.

6 <https://www.youtube.com/watch?v=JvLdIYXJsfQ> (2017년 1월 10일 접근), <https://www.youtube.com/watch?v=Agr9XsIrCgY> (2017년 1월 10일 접근);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이만석-65734.html> (2017년 1월 10일 접근);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88122/20160101/유해석-칼럼-유럽에서-이슬람-인구-증가로-나타난-다양한-문제들.htm> (2017년 1월 10일 접근).

2009년 안상준은 “한국 개신교의 이슬람에 대한 인식과 대 이슬람권 선교 정책”이라는 그의 학위 논문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약 2,23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논문에 의하면, 설문 응답자의 48.8%가 이슬람 선교와 관련하여 중동 지역 연구에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효과적인 하나님 선교를 위한 예비 단계로서 중동 지역 탐구의 필요성을 느꼈으나, 학문적 접근 보다는 교회의 선교 보고 및 언론 (TV, 신문)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중동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는 ‘이슬람 국가’ (43.6%) ‘산유국과 건설 시장’ (28.5%) 그리고 ‘전쟁과 테러’ (25.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이슬람 국가와 전쟁/테러의 이미지를 쉽게 연상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⁷

2016년 들소리 신문은 창간 39주년을 기념하여 4월 21일부터 일주일간 545명을 대상으로 ‘이슬람에 대한 한국 기독교인의 의식 조사’를 실시했다. 그 대상자의 85.2%가 20년 이상 신앙 연륜이 있는 자들로서, 이들에게 이슬람에 대한 가장 큰 이미지는 단연 “테러 집단”이었다. 이 설문조사의 응답자들 역시 이슬람에 대한 정보 수집이 전문 서적이거나, 깊은 학문적 탐구 활동보다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가 불명확한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를 의존하고 있었다.⁸

2016년 6월에 실시한 김수완의 “한국인의 아랍, 이슬람 이미지 및 관련 언론 보도 인식 연구” 역시 이전 두 설문 결과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김수완은 종교와 상관없이 563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이슬람

7 안상준, “한국 개신교인의 이슬람에 대한 인식과 대 이슬람권 선교 정책: 중동지역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문학박사 학위 논문 (2008), 34-113.

8 <http://www.deulsor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02> (2017년 1월 10일 접근).

에 대해 ‘테러, 전쟁, 분쟁, 위험한 지역’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⁹

이처럼 2009년과 2016년 4월, 6월, 세 번에 걸친 ‘이슬람에 대한 한국인 의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10여년 이상 많은 한국 무슬림 학자들의 학문적 접근을 통한 이슬람의 이미지 쇄신의 노력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2012년 필자의 학위 논문 결과에 의하면, 내국인 무슬림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¹⁰ ‘이슬람에 대한 한국인들의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사회에서 무슬림 개종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가?’ 이 핵심적 질문과 함께 21세기 한국 무슬림 공동체의 특징과 이들을 향한 바른 선교적 접근 방법이 무엇인지 탐구하고자 한다.

II. 이슬람의 한국 선교: 어제(past)

1. 통일신라 말기에서 고려 시대

이슬람은 기독교, 불교와 함께 선교적 종교로서¹¹ 그들의 활동 영역을 아라비아 반도에 제한 두지 않고, 아프리카와 유럽을 넘어 아시아까지 빠른 속도로 진출한 흔적을 세계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¹² 그 결과 신라인들은 무함마드(Muhammad)의 종교 운

9 김수완, “한국인의 아랍, 이슬람 이미지 및 관련 언론보도 인식 연구,” 206.

10 Sungsu Park, “Islamic Da’wah in Korea,” (*PhD. Diss.* Asbury Theological Seminary), 2013, 2.

11 막스 뮐러 (Max Müller)는 1873년 웨스트민스터 아비 (Westminster Abbey)에서 강의 도중 6개의 세계 종교를 선교적 종교와 비선교적 종교로 구분하였다. 기독교와 불교, 이슬람은 선교적 종교로, 유대교와 힌두교, 그리고 조로아스터교는 비선교적 종교로 구분한다. 참고: Thomas Arnold, *The Spread of Islam in the World: A History of Peaceful Preaching* (2nd ed.), (New Delhi: Goodword Books, 2001), 1.

12 이희수, 『이슬람 학교』, 84-108.

동 초기부터 아랍 무슬림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으며, 직·간접적으로 이슬람 신앙에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통일신라 말기 당나라와 활발한 교류 활동을 보였던 신라인들은 이미 중국까지 진출한 페르시아계 무슬림들과 직접 교류하면서, 중동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에까지 관심을 갖게 된다.¹³ 중동의 무슬림들 역시 신라에 대한 관심도와 동경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간수(Qansu)의 맞은 편 중국의 맨 끝에 신라라는 산이 많은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領主國(영주국)들로 갈라져 있다. 그곳에는 金(금)이 풍부하다. 이 나라에 와서 영구 정착한 이슬람교도들은 그곳의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나라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븐쿠르다비드, 『제도로 및 제왕국 안내서』).¹⁴

고대 아랍 문서들에 등장하는 신라에 대한 기록은 매우 우호적이며, 신라를 향한 긍정적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뜨거운 태양, 거친 모래 바람과 힘겹게 사투를 벌여온 중동의 무슬림 상인들은 아랍과 전혀 다른 신라의 신선한 공기와 시원한 물, 그리고 비옥한 땅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양식을 보고 이 땅에 정착하고 싶은 분명한 이유를 찾았다. 어떤 아랍의 작가는 신라를 유토피아(Utopia), 영원과 행운의 섬인 아틸란티스(Atlantis)에 비유하기도 했다.¹⁵ 이러한 역사적 근거들로 보아 이슬람 신앙을 가진 무슬림들은 이슬

13 이희수, 『이슬람과 한국 문화: 걸프 해에서 경주까지 1,200년 교류사』 (서울: 청아 출판사, 2012), 60; Marshall Broomball, Islam in China (NJ: Gorgias Press, 2007), 62-67.

14 김창석, “8-10세기 이슬람 제종족의 신라 來往(내왕)과 그 배경,” 『한국 고대사 연구』, no. 44 (2006): 98.

15 이희수, “이슬람권의 한국사 관련 자료 소개,” 『역사와 현실』 no. 8 (1992): 378-379.

람 초기부터 한국인들과 접촉했으며, 그들의 삶이 곧 종교이기 때문에 삶으로 한국인들에게 이슬람을 알리는 선교적 접근(*da'wah*)이 끊임없이 시도 됐을 것으로 사료된다.

무슬림들의 본격적인 한국 입성은 고려말기부터이다. 12세기 말 징기스 칸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몽골 부족 연합 운동을 일으키면서, 급격한 세력 확장을 시도한다. 그 결과, 이들은 빠른 속도로 몽골을 넘어, 중앙아시아, 아라비아 반도, 동유럽, 중국 심지어 고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장해 갔다. 징기스 칸은 자기 시대에 몽골을 중심으로 한 팍스 몽골리카(Pax-Mongolica)를 꿈꾸는 사람이었다.¹⁶ 그 꿈을 현실로 이룬 것은 그의 손자 쿠빌라이 칸(Kubilay Khan) 시대에 이르러서인데, 그는 빠른 몽골 제국의 확장을 위해 당시 뛰어난 정치, 문화, 경제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던 위그루와 티벳 일대의 무슬림 상인들을 제국의 주요 관리직에 등용했다.¹⁷ 쿠빌라이 칸은 이 무슬림 관료들의 도움으로 중국을 넘어 AD 1270년 고려까지 점령한다. 이때, 몽골 정부는 고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신 파견, 혼인정책, 정동행성(征東行省) 설치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쿠빌라이 칸은 고려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그의 딸인 제국공주(齊國公主)를 고려 왕조에 시집보낸다. 이때 4명의 관리들을 함께 파견하는데, 그 중 한명인 삼가(三歌)는 위그루 출신의 무슬림으로서 한국인과 결혼한 후 한국 땅에 정착하고, 한국 이름 “장순룡(張舜龍)”으로 불리웠다. 순룡은 원나라의 사신으로서 고려 땅을 밟았지만, 고려를 무척 사랑했고 고려와 쿠빌라이 정부 사이에 성실한 외교 활동으

16 Jack Weatherford, *Genghis Khan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NY: Crown, 2004), 43-45.

17 이희수, 『이슬람과 한국 문화』, 152-153.

로 고려의 충렬 왕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고 고려 정부에 고위 관리직을 맡게 된다. 그 결과 무슬림 장순룡의 후손들은 한국 사회에서 쉽게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 살 수 있게 되었다.¹⁸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여사제강(麗史提綱) 등 역사서에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무슬림을 소개하자면 민보(閔甫)다. 이 역사서들이 몽골 출신 민보의 구체적인 일상을 소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 책 모두 동일하게 원나라에서 온 민보를 무슬림으로 소개한다. 민보 역시 장순룡과 마찬가지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무슬림이지만 한국 땅에 정착한 또 다른 인물로 기록되고 있다.¹⁹

설손(契遜)은 원나라에서 일어난 ‘홍건적의 난’을 피해 고려로 망명한 인물이다. 그는 중국 신장 일대의 무슬림 출신의 시인으로 공민왕(恭愍王)이 과거 원나라에 포로로 잡혀 왔을 때 친분을 쌓은 덕에 그가 고려에 도착하자마자 고려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었고, 고려시대 대표적인 시인 중 한 사람으로 고려의 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정수일은 그의 후손들이 경주 일대에서 뿌리를 내리고 현재 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²⁰

고려 시대에 이러한 무슬림 정치 관료 외에도 경제 및 문화 교류를 위해 상당한 무슬림들이 고려 땅을 밟았던 흔적들이 역사서에 등장한다. 한 예로, “대식국(아라비아)에서 열라자 등 100여명이 와서 왕을 만나 토산품을 바치니, 왕이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게 하였다. 또 그들이 돌아갈 때, 금, 은, 옷감 등을 선물로 주었다.”²¹ 이처럼 다양한 무슬림들이 고려 땅에 정착하면서 이들을 중

18 Sungsu Park, “Islamic Da’wah in Korea,” 102–103.

19 최남선, 『조선상식문답』(서울: 삼성문화재단, 1985), 249.

20 정수일, 『한국 속의 세계 下』(서울: 창비, 2005), 136–137.

21 이희수, 『이슬람: 9/11 테러와 이슬람 세계 이해하기』(서울: 청아 출판사, 2001), 424.

심으로 한 무슬림 공동체가 형성 되었고, 이들이 정기적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초의 이슬람 사원, ‘예궁(禮宮)’이 개경 인근에 세워졌다.²²

2. 조선시대

한국 땅에서 무슬림들이 정치, 문화, 경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인 것은 AD 1270년 고려가 원나라에 망하고 무슬림 관료들의 유입이 시작되면서부터 조선초기까지이다. AD 1392년 고려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등극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은 조선의 고위 관리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의 영향력을 궁중까지 이끌고 갔다. 그 결과 조선 초기 세종조(世宗朝)까지 무슬림 대표들은 궁중의 공식 행사에 초대되어 이슬람식 기도와 꾸란 낭송을 통해 왕의 만수무강과 국가의 안녕(安寧)을 기원했다. AD 1427년 세종대왕의 ‘이색적인 풍속을 금지하는 외래습속 금지령’ 있기 전까지 이슬람은 불교와 함께 조선 궁정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종교로서 그 역할을 다했다. 따라서 한국내 무슬림들은 그들의 고유한 종교 의식과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제한을 받지 않았다.²³ 그러나 세종 이후 조선 왕조는 더 이상 불교나 이슬람 종교 색채가 아닌 명나라(明朝)의 영향으로 유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쇄국정책을 내세우며 새로운 왕정시대를 이어갔다. 그 결과 조선 초기 이후 500년 동안 한국 역사에서 무슬림에 대한 기록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22 정수일, 『한국 속의 세계 下』, 137-138.

23 정은주 외 2명, 『비단길에서 만난 세계사』 (서울: 창비, 2005), 357.

3. 20세기 초

이슬람이 다시 한국 문을 두드린 것은 20세기 초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과 깊은 관련이 있다. 러시아에 정착해 살던 튀르크계 무슬림들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과 함께 러시아에 있는 비슬라브계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정책이 펼쳐지자 러시아를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 되었다. 이때, 카잔(Qazan) 튀르크인들을 중심으로 한 600여 명의 난민들은 만주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군 사령부를 방문하여 망명 신청을 하자, 일본군은 그들 중 200명을 한국 땅에, 나머지 400명은 일본 본국에 정착하도록 배려하면서 다시 한 번 무슬림들이 한국 땅을 밟게 된다.²⁴

20세기 초 일본에 의해 망명이 허락된 200여 명의 무슬림들은 서울을 포함, 대구, 부산, 인천, 목포, 대전, 평양, 신의주, 청진, 흥남 등 남·북한 전 지역에 흩어져 ‘Mahall-i Islamiyeh(이슬람 마을)’이라 불리는 집단촌을 형성하고 그들 고유의 종교, 문화적 활동을 이어 갔다. 이들은 소자본 행상으로 시작해 의류 도소매 사업인 포목점과 양복점을 경영했으며, 정찰 판매를 기본으로 하는 일본 상점과는 달리 ‘홍정 심리’를 활용해 한국인 고객 확보에 나섰다. 그 결과 이들의 사업은 단기간 내에 성공할 수 있었다. 1930-1940년대 중반까지 튀르크계 무슬림들은 한국 전역에 70여개의 점포를 운영할 정도로 빠르게 경제적 독립을 이루었다.²⁵

이러한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튀르크계 무슬림들은 즉시 한국 무슬림 협회를 창설하고 서울 시내에 한 건물을 매입했다. 이 건물을 중심으로 한국내 무슬림들의 신앙 운동이 전개 되었는데, 이 건

24 이희수, 『이슬람과 한국문화』, 317-321.

25 권지윤, “한국의 이슬람,”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1, no.1 (2009): 55.

물에서 금요합동 예배를 포함 각종 행사: 결혼, 강연 및 어린이 공연, 명절 등을 열어 흠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무슬림들의 종교적, 민족적 센터 역할을 자처했다.²⁶

그러나 20세기 망명차 러시아로부터 내려온 튀르크계 무슬림들 역시 한국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튀르크계 무슬림들이 일본의 통치 아래 한국 땅에서 경제적 부와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친일(親日)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일본에 대한 부정적 사고가 강력했던 한국인들에게 친일적 성격을 보인 무슬림들의 종교는 결코 매력적이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20세기 초 튀르크계 무슬림들이 한국에서 활동할 당시 내국인 무슬림 개종자들의 수는 소수에 불과했다. 그리고 1945년 일본의 세계2차 대전 패배와 함께 일본인들의 비호를 받던 튀르크계 무슬림들 역시 한국 땅을 떠나 캐나다, 미국, 호주, 터키 등지로 떠나야 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²⁷ 이로 인해 20세기 초 튀르크계 무슬림들의 이주로 시작된 국내 무슬림 공동체의 부흥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시 막을 내리게 되었다.

Ⅲ. 이슬람의 한국 선교: 오늘(present)

1. 1950-1960년대

통일신라 말기로부터 시작하여 고려,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이슬람 신앙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26 이정순, 『21세기 한국 이슬람의 어제와 오늘』 (서울: 도서출판사 대서, 2012), 31.

27 이희수, 『이슬람과 한국문화』 336-338.

이슬람은 결코 종교적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1950년에 일어난 한국 전쟁(Korean War)은 과거 지지부진하던 이슬람의 선교 방향성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꾸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1945년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의 정치적 이념 대립으로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를 받던 김일성은 남한을 침략하고, 이에 남한은 즉각적으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도움을 청했다. 이때 유엔(UN) 가입국이었던 터키는 대규모 여단 병력을 한국 전쟁에 파견했고, 무슬림 용병들의 피흘리는 희생과 헌신이 이슬람에 대한 한국인들의 부정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²⁸ 한국 전쟁 이전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가 ‘극도의 혐오와 부정’ 이었다면, 전후(戰後) 이슬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피를 나눈 형제들의 종교로서 매우 호감적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내국인들 중 이슬람에 관심하고 개종하는 사례가 1950년대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 내 무슬림 공동체는 1955년 9월 15일 윤두영, 김진규와 김유도를 중심으로 한 “한국 이슬람 협회”를 결성하고, 윤두영을 최초의 이مام으로 추대했다. 그리고 그해 10월 비록 야전용 천막이었지만, 임시 모스크와 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이슬람의 한국 선교 시대를 열었다. 이희수는 이 시기 한국 무슬림 공동체 숫자를 208명으로 추정한다.²⁹

1960년대는 개종한 한국 무슬림들의 적극적인 선교 활동과 동시에 외국 무슬림들의 한국 이슬람화를 향한 노력이 각별했던 시기이다. 특히 1963년 말레이시아 국회의장이 한국 방문 이후 한국

28 권지윤, “한국의 이슬람,” 56.

29 이희수, “한국 이슬람의 어제와 오늘,” 『이스마엘 우리의 형제』 2004년 제 67호 (한국 이슬람연구소), 6.

내 무슬림 공동체 확장을 위한 모스크 건립 기금 \$33,000달러를 제공하는 한편, 파키스탄의 사이드 무함마드 자밀(Saiyd Muhammad Jamil)은 1966년 10월 약 40일간 한국에 체류하며 명지대와 YMCA에서 “이슬람은 무엇인가?”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한국 젊은이들에게 아랍의 종교를 소개했다.³⁰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의사 무함마드 일리아스(Muhammad Ilyas)는 세계 보건 기구(WHO) 대표로 한국을 방문해 서울 대학교 공중 보건 교수로 사역하면서, 한국인들을 위한 정기적인 주마 예배를 인도했다. 그는 한국 무슬림들과 함께 꾸란을 읽었으며, 이슬람의 다섯 가지 신앙 덕목을 가르치는 등 국내 선교 활동에 열심을 보였다.³¹

2. 1970-1990년대

1970년대는 한국 사회에서 ‘이슬람의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좋은 기틀을 마련한 시기이다. 무엇보다도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 용산구 한남동 소재 시유지 1,500평을 한국 이슬람 협회에 기증하고, 이슬람 국가들 역시 이슬람 사원 준공을 위한 후원금 약 40만 불을 준비했다. 그로 인해 1976년 5월 한국 최초의 돔형 이슬람 사원이 한국 땅에 건축 되었다. 이와 더불어 “소수 무슬림 국가에서의 이슬람 선교”라는 주제의 포럼을 열어 한국 사회에서의 효과적인 이슬람 선교의 방향성을 국·내외 무슬림들이 함께 고민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중동 이슬람 국가의 건설 붐은 한국 내 이슬람 개종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중동 건설 현장에 나가 외화 벌이를 하려던 한국 노동자들은 이슬람 국가

30 이정순, 『21세기 한국 이슬람의 어제와 오늘』, 34.

31 Sungsu Park, “Islamic Da’wah in Korea,” 126.

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이슬람 사원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중동 문화와 이슬람 신앙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를 통해 한국 무슬림들은 비무슬림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이슬람과 중동 문화를 소개했고, 많은 노동자들이 이슬람 국가에서 무슬림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개종하기도 했다. 그 결과 한국 이슬람 중앙회 자료에 의하면 당시 국내 무슬림 공동체가 약 3,700명에 이르렀다고 보고한다.³²

1990년대는 급격한 한국 경제 성장과 함께 외국 무슬림 노동인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서울을 포함, 부산, 대구, 전주에 이르기까지 한국 전역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다. 게다가 1970-80년대 이슬람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 이슬람과 중동 문화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정진하던 젊은 인력들이 대거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의 학문적 선교 (Academic *da'wah* for Islam in Korea) 활동이 활발해졌다. 이로 인해 1990년대는 한국 이슬람의 신학적 성숙의 시기를 맞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의해 출판되는 이슬람 서적을 통해 한국인들은 좀 더 쉽게 이슬람을 접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개종하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다.³³ 한국 이슬람 중앙회 발표에 의하면, 2005년 기준 한국내 무슬림 규모는 약 150,000명으로, 이 중 한국 무슬림 개종자는 약 35,000명으로 추산했다.³⁴ 그러나 2010년 미국 전문 리서치 기관인 퓨포럼에서는 이슬람으로 개종한 한국인을 지난 2005년보다 약 2배 많은 75,000명으로 발표했다.³⁵ 통일신라 시대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이슬람 선교가 한국 사회에서 실패했던 것과는 달리,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점진적 성장세를 보여 온 한국

32 한국 이슬람 중앙회, "Islam in Korea" (서울: 한국 이슬람 중앙회, 2009), 11.

33 이정순, 『21세기 한국 이슬람의 어제와 오늘』, 35-38.

34 한국 이슬람 중앙회, "Islam in Korea," 19.

35 <http://features.pewforum.org/muslim-population/growth.php> (Last accessed on Dec. 15, 2012).

무슬림 공동체가 21세기 들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 선교를 위해 어떻게 한국 무슬림들을 접근해야 할까?

3. 21세기 내국인 무슬림 공동체의 특징

필자는 2012년 5월 한국인 무슬림 개종자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개종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내국인 무슬림들과의 인터뷰를 시도했다. 기독교인으로서 내국인 무슬림들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우선, 약 두 달간 매주 금요일 정오마다 이태원 이슬람 중앙 성원에서 있는 주마예배(*Jumu'ah* prayer)에 비무슬림으로 참석해 예배를 참관하고 그곳에서 한국 무슬림들을 만나 인터뷰를 요청을 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리서치 표본을 획득하기 위해, 이메일, 인터넷 카페 “이슬람으로 하나되는 세계,” 온라인 채팅 웹사이트, 장후세인의 책, “이슬람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³⁶ 등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총 49명의 한국 무슬림들을 만났다.

1) 개종자들의 성별

우선, 필자가 만난 내국인 무슬림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 보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볼 때, 남성 무슬림들이 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인터뷰 응답률이 높았다. 이는 이슬람에서 여성 무슬림들이 알지 못하는 남성 무슬림(Unknown Muslim man)과 직접 대면하는(face-to-face) 것을 문

남성	32명 (65%)
여성	17명 (35%)

표1 내국인 무슬림들의 성별

36 <http://cafe.naver.com/islamworld>; <http://chatislamonline.org/ko/>; 장후세인, 『이슬람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서울: 젠나무민북스, 2012), 256-317.

화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무슬림들의 인터뷰 참여 조는 당연한 결과 일 수 있다.

2) 개종자들의 교육 수준 및 사회 계층 분포

	남성 (n=32명)	여성 (n=17명)	총인원 (n=49)
고졸이하	12명 (24%)	3명 (6%)	15명 (31%)
대졸	14명 (29%)	12명 (24%)	26명 (53%)
석사	3명 (6%)	2명 (4%)	5명 (10%)
박사	3명 (6%)	0명 (0%)	3명 (5%)

표2 내국인 무슬림들의 교육 수준

한국의 많은 사회학자 및 한국 교계 지도자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한국인들의 경제 및 교육 수준이 매우 낮은 사람들일 것이라 추측했다.³⁷ 그러나 위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인터뷰 대상자들의 69%(34명)가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들이었다. 특히 3명의 남성 무슬림들은 박사학위 소지자들로 1970-80년대 이슬람 국가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학사를 마치고, 이후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중동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례이다. 당시 외국 무슬림 선교사들은 한국 이슬람의 밝은 미래를 위해 내국인 무슬림을 중심으로 한 인재 양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동의한 이슬람 국가들이 젊은 개종자들에게 해외 유학의 기회를 제공했다. 1990년대 이들이 중동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국내에서 이슬람의 신앙과 낯선 중동 문화 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37 박성수, “한국 무슬림들의 개종 사례 연구,” 「선교신학」 no. 38 (2015): 179-180.

	남성 (n=32명)	여성 (n=17명)	총인원 (n=49)
일용직 노동자	4명 (8%)	1명 (2%)	5명 (10%)
저소득층	8명 (16%)	6명 (12%)	14명 (29%)
중산층	20명 (40%)	10명 (21%)	30명 (61%)
고소득층	0명 (0%)	0명 (0%)	0명 (0%)

표3 내국인 무슬림의 경제-사회적 지위

69% 이상의 고학력 내국인 무슬림들은 그들의 경제 수준을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평가했다. 49명의 내국인 무슬림 중 자신을 최고의 상류층으로 분류하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대체로 무슬림들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다. 단 10명(22%)의 인터뷰 대상자들만 현재 무직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무직자들 중 소수의 여성들은 자신들을 이슬람 신앙 전파를 위한 전문 포교자라고 밝혔다. 이들은 뚜렷한 직업 없이 이태원 중앙 성원 맞은편에 위치한 ‘한국인들을 위한 이슬람 정보 센터 (Islamic Information Center for Koreans)’³⁸에서 이슬람에 관심하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하고 있었다.

3) 개종자들의 회심 시기

	남성 (n=32명)	여성 (n=17명)	총인원 (n=49)
10대	1명 (2%)	1명 (2%)	2명 (4%)
20대	16명 (33%)	8명 (16%)	24명 (49%)
30대	6명 (12%)	3명 (6%)	9명 (18%)

38 2012년 필자가 한국 무슬림들을 만나기 위해 자주 방문했던 센터다. 2010년 한국 무슬림 전도자 박동신에 의해 시작된 이 정보 센터는 그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유학을 가면서 몇 명의 무슬림 여성들이 그 센터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2016년 12월) 필자가 이 이태원을 방문했을 때 더 이상 이 센터는 찾아 볼 수 없었고, 이 센터는 아랍인이 주인인 옷가게로 바뀌어 있었다.

40대	6명 (12%)	4명 (8%)	10명 (21%)
50대 이상	3명 (6%)	1명 (2%)	4명 (8%)

표4 종교 회심 시기

20세기 후반의 심리학자 레이몬드 팔로우치안(Raymond F. Paloutzian)은 십대를 “회심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the ripe age for conversion)”로 분류했다.³⁹ 즉, 사춘기의 청소년들은 삶의 가치관이 불안정하며 감정적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때 어떤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십대들은 그 종교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 시기에 적절한 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본다. 이는 20세기초반부터 시작해서 20세기 후반까지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에게 큰 지지를 받아 온 연구 결과이다.⁴⁰

그러나 1990년대 영국의 무슬림 개종자 7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알리 쾨제(Ali Köse)는 최근 이러한 전통적인 심리학자들의 주장을 뒤집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이슬람으로 개종한 무슬림 76명의 평균 나이가 29.7세로, 단 한명의 무슬림만 십대에 개종했고, 전체 인원의 61.5%는 23-45세 사이에 그들의 종교 정체성 변화를 체험했다.⁴¹ 쾨제에 따르면, 십대는 더 이상 종교 회심을 위한 적정 시기가 아니었다.

필자의 연구 결과 역시 이러한 쾨제의 주장을 지지한다. 49명

39 Raymond F. Paloutzian, *Invitation to the Psychology of Religion* (Ill: Scott, Foresman, and Co., 1983), 99-100.

40 Edwin Starbuck, *The Psychology of Religion* (London: The Walter Scott Publishing Co., 1908), 38; George Coe, *The Psychology of Relig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17), 163; Granville Stanley Hall, *Adolescence: Its Psychology and its Relations to Physiology, anthropology, sociology, sex, crime, religion and education* (London: Appleton and Company, 1915), 288-292.

41 Ali Köse, *Conversion to Islam* (London and NY: Kegan Paul International, 1996), 47.

의 이슬람 개종자들 중 단 2명의 무슬림만 사춘기에 이슬람에 입교했고, 나머지 47명은 모두 청소년기가 지난 시점에 이슬람 성원을 방문해 신앙 고백을 통해 무슬림이 되었다. 전체 인원의 절반은 20-29세 사이에 개종했으며, 개종자들의 평균 연령은 궤계의 연구 결과보다 약간 높았다. 레리 포스톤(Larry Poston) 역시 1990년대 초 72명의 북미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그들의 평균 연령은 31.4세였다.⁴² 이처럼 최근 세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기가 종교 회심을 위한 최적기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선부른 결론이다. 20세기 초중반까지는 청소년기가 회심을 위한 최적기였다고 한다면, 20세기 후반부터 그 연령대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점점 늦춰지고 있다.

4) 결혼과 이슬람 개종의 상관관계

많은 한국 기독교 리더들은 내국인 무슬림 공동체 성장 요인을 국제결혼에 있다고 추정한다. 즉,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무슬림들과 한국 여성들의 결혼 사례가 증가하면서 개종한 한국 무슬림 여성과 코스림(Koslim)⁴³ 인구의 증가를 염려하고 있다.⁴⁴ 그러나 필자의 연구 결과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우려와는 사뭇 달랐다.

우선, 총 49명의 내국인 무슬림들을 인터뷰한 결과 기혼자는 전체 응답자의 65%(32명)이었다. 이들 중 12명이 외국 무슬림과 결혼한 커플들이었으며, 나머지 15명의 기혼자들은 그들의 배우자가

42 Larry Poston, *Islamic Da'wah in the West* (NY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166.

43 코스림(Koslim)은 영어 Korean + Muslim의 합성어로 혈통적으로 외국 무슬림과 한국 무슬림 사이에 태어난 2세대 자녀들을 일컫는 용어이다. 참고) 조희선 외 4명, "한국 이주 무슬림의 혼인 현황과 정착 과정 연구," 「지중해 지역 연구」 제 11권 13호 (2009): 79-115.

44 이정순, 「21세기 한국 이슬람의 어제와 오늘」, 84-88.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 무슬림이었다. 그리고 5명의 기혼 응답자는 배우자의 종교가 아직 이슬람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기혼 무슬림들에게 결혼과 개종의 상관관계를 물었을 때, 32명의 기혼 무슬림 중 오직 3명의 여성만이 결혼 후 그들의 종교 정체성을 이슬람으로 바꾸었으나, 이들 역시 배우자의 강요나 외부적 영향 때문이 아니라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무슬림 배우자를 만났고, 전적인 자신의 의지로 이슬람 신앙을 고백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32명의 기혼 무슬림 모두 결혼과 개종에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으며, 철저한 자신들의 신앙 탐구 이후 개종한 것으로 응답했다.

5) 개종자들의 선행(先行) 종교적 배경

1990년대 퀴제와 포스톤의 영국 그리고 북미 무슬림 개종자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다수의 무슬림들은 그들의 이전 종교가 기독교였다.⁴⁵

퀴제		포스톤		메흐메도글루와 김현철	
이전종교	n=70명	이전종교	n=72명	이전종교	n=27명
영국 성공회	51명 (73%)	기독교	41명 (57%)	개신교	16명 (60%)
천주교	12명 (17%)	천주교	10명 (4%)	천주교	2명 (7%)
유대교	4명 (6%)	개신교	8명 (11%)	불교	2명 (7%)
감리교	3명 (4%)	초교파	23명 (32%)	유교	1명 (4%)
		유대교	5명 (7%)	무교	6명 (22%)
		힌두교	1명 (1%)		
		불가지론	2명 (3%)		
		무교	23명 (32%)		

표5 영국, 북미, 한국 무슬림들의 개종전 종교 현황

45 Köse, 67; Poston, 166; Ali Mehmeolu and Heonchoul Kim "Conversion Motifs: A Study of Present-day South Korean Converts to Islam," *Journal of Academic Studies* (2002): 127.

위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슬림 중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 콰제의 경우 영국의 전통 종교였던 성공회 교도들의 개종 사례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천주교와 유대교, 그리고 감리교 순이다. 다민족(multi-ethnic) 국가로 형성된 북미 무슬림 개종자들의 경우, 콰제보다는 다양한 종교로부터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포스톤의 연구 결과 역시 전체 72명의 무슬림 개종자 중 과반수 이상이 교회를 떠나 이슬람 사원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다. 북미와 영국 모두 기독교 인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인구가 가장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불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기 때문에, 종교 인구대비 불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비율이 가장 많아 함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 실시한 메흐메도글루와 김현철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인터뷰 대상자 27명 중 2명만 불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했고, 오히려 콰제와 포스톤의 연구 결과처럼 기독교인들의 이슬람 개종률이 가장 많다.

종교	남성 (n=32)	여성 (n=17)	총인원 (n=49)
개신교	19명 (39%)	9명 (18%)	28명 (57%)
천주교	5명 (10%)	3명 (6%)	8명 (16%)
불교	1명 (2%)	3명 (6%)	4명 (8%)
선천적 무슬림 (Born Muslim)	1명 (2%)	0명 (0%)	1명 (2%)
무교 (No affiliation)	6명 (12%)	2명 (4%)	8명 (16%)

표6 토착 무슬림들의 개종전 종교

본 논문 역시 선행된 연구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전체 응답자들 중 개신교와 천주교를 통합해 자신들이 기독교인이었음을 밝힌 응답자는 총 39명(73%)이었다. 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주된 원인은 기독교 교리의 복잡성과 모호성, 그리고 개신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손꼽는다.

제가 이슬람으로 개종하기 전 저는 열성적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살면서 헌신적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께서 돈에 대해 투명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교회 어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만약 목사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목사님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 앞에 교우들과 싸우지 않고, 겸허하게 자신의 문제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진짜라면, 이 문제에 있어서 친히 중재하시고 다툼을 말리셨어야 합니다. 저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독교에 대한 이러한 대 실망 중에 한 무슬림 리더를 만났고, 그가 속한 종교 공동체는 달라보였습니다. 그는 정직했고, 겸손했으며,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이슬람의 평등주의는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슬림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⁴⁶

46 필자가 2012년 5월 14일 이태원 이슬람 성원에서 에미르(Emir)를 만나 인터뷰 했다.

6) 내국인 무슬림들의 개종 동기

1996년 콰제는 영국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무슬림 7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회심 동기를 연구했다. 그로부터 6년 뒤 2002년 두 명의 무슬림 학자, 메흐메도글루와 김현철은 27명의 한국 무슬림을 대상으로 이들의 개종에 미친 영향들을 연구했다. 비록 이 두 논문이 지역적으로는 다른 곳에 거주하는 무슬림 개종자들을 연구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이슬람으로 개종한 무슬림들을 존 로프랜드(John Lofland)와 놀만 스코노브드(Norman Skonovd)가 제시한 여섯 가지 개종 동기 유형으로 분류했다는 것이다.⁴⁷ 필자 역시 본 장에서 로프랜드와 스코노브드의 종교 회심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 무슬림들의 종교 정체성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된 두 연구의 결과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할 것이다.

	콰제	메흐메도글루/김현철	본 논문
지적 동기	50명 (71%)	19명 (70%)	39명 (80%)
신비적 동기	10명 (14%)	3명 (11%)	2명 (4%)
실험적 동기	42명 (60%)	7명 (26%)	33명 (67%)
정의(情誼)적 동기	46명 (66%)	9명 (33%)	32명 (65%)
부흥회적 동기	0명 (0%)	0명 (0%)	0명 (0%)
강제적 동기	3명 (4%)	0명 (0%)	0명 (0%)

표7 무슬림들의 개종 동기 비교

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 사람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데는 한 가지 특별한 개종 동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동기들이 복

47 6가지 개종 동기 유형 분류: 지적 동기 (Intellectual conversion), 신비적 동기(Mystical conversion), 실험적 동기 (Experimental conversion), 정의적 동기 (Affecional conversion), 부흥회적 동기 (Revivalist conversion), 강제적 동기 (Coercive conversion). John Lofland and Norman Skonovd, "Conversion Motif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20 (1981): 373-385.

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종교 정체성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선행된 두 연구에서 여섯 가지 회심 원인 중 지적 동기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다. 약 70% 이상의 인터뷰 대상자들이 이슬람을 처음 접한 후 지적 호기심에 오랜 시간 동안 이슬람 신앙을 탐구 한 후 ‘샤하다’를 고백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지적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된 이슬람으로의 개종 현상은 필자의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총 49명 중 39명의 무슬림들이 그들의 개종 사유를 ‘이슬람은 이성적인 종교로서 가장 신뢰할 만한 종교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이슬람 신앙과 무슬림에 대한 첫인상이 매우 비호감적이었으나, 이슬람을 오랜 시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한 결과 이슬람 신앙이 옳다고 판단하여 무슬림이 되기로 작정했다. 이를 반증하듯 대부분의 내국인 무슬림들은 이슬람을 처음 접한 시기로부터 개종시까지 짧게는 몇 개월에서부터 길게는 2년 이상 이슬람 신앙을 지적으로 탐구하고 실험적으로 무슬림 공동체와 예배 활동에 참여한 후 무슬림이 되었다.

	남성	여성	총계
3개월 이하	3명 (6%)	10명 (20%)	13명 (27%)
3~6개월	6명 (12%)	3명 (6%)	9명 (18%)
6~12개월	19명 (39%)	2명 (4%)	21명 (43%)
1~2년	3명 (6%)	2명 (4%)	5명 (10%)
2년 이상	1명 (2%)	0명 (2%)	1명 (2%)

표8 이슬람 접촉 후 개종까지 걸린 기간

그러나 필자의 설문에 응답한 2명의 개종자들은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Muhammad)가 히라 동굴(the cave of Hira)에서 체험

www.kci.go.kr

한 영적 신비와 비슷한 경험을 한 후 즉시 이슬람에 입교했다. 그 예로, 아랍 음악을 공부하던 하비블라(Habibula)는 꿈에서 무함마드가 나타나 이슬람에 입교할 것을 권고하여 개종했다. 한편, 다른 한 여성은 전직 스투어디스였는데, 사우디 공항에 입국할 때 그에게 들려진 코란 낭독에 감동되어 즉시 샤하다를 하고 무슬림 되었다. 이 두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무슬림들의 종교 의식을 깊이 관찰하고 오랜 시간 이슬람 신앙과 문화를 공부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이외에 두 가지 동기(motifs), 부흥적 동기와 강요적 동기는 한국 상황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최제의 연구 결과 3명의 응답자가 그들의 개종에 외부 강제성이 있었음을 답했지만, 이것은 세뇌나 사상개조의 형태가 아니라 결혼과 함께 그들의 배우자에 의한 이슬람으로의 개종 요구였다. 이 사례 역시 두 가지 개종 요소-정의(情誼)적 요소 + 강요적 요소-가 함께 작용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종교 정체성 변화에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개종 요소들이 함께 작용한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국내 기혼 무슬림들의 경우는 영국 무슬림들과 달리 배우자가 그들의 종교 정체성 변화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반응했다. 오히려 필자의 인터뷰에서 개종자들은 꾸란 2:256을 언급하며 이슬람 개종은 강요로 이루어 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IV. 21세기 내국인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선교적 이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이슬람 역사는 결코 짧지 않

www.kci.go.kr

다.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앞서 한국 땅을 밟았지만, 아 이러니하게도 1950년대 이전까지 이슬람은 결코 한국인들에게 호 감적인 종교가 되지 못했다. 필자가 그 원인을 몇 가지로 분석해 보면, 우선 8-9세기 활발한 무역 활동을 통해 아랍의 신(新)문물을 접하게 된 신라인들은 궁중을 포함, 서민들까지 이 새로운 중동 문 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아랍에서 온 무슬림들은 종교와 문화를 분 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삶을 통해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이 슬람 신앙과 무슬림 문화를 소개했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인과 무슬림들 사이의 긍정적 접촉이 고려 시대에 이르러 부정적 이미지로 변모되었다. 그 이유는 몽골 제국 으로부터 파견된 무슬림 관료들이 보여준 부도덕함과 관료주의적 인 모습 때문이었다. 피지배계층으로 살아야 하는 한국인들에게 무슬림 관료들이 보여준 삶의 태도는 그들의 종교까지 비호감적 으로 만들었다. 특별히 고려가요에 등장하는 “쌍화점”은 ‘회회아 비’라고 불리던 무슬림들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대표적인 문학 작 품으로, 고려인들에게 무슬림들은 상종하고 싶지 않은 존재로 기 록되고 있다.⁴⁸ 그 결과 고려 시대에 외부에서 유입된 다수의 무슬 림들을 위한 이슬람 사원까지 세워졌으나, 이슬람으로 개종한 고 려인들에 대한 기록은 소수에 불과하다.

20세기 초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과 함께 다시 한국 땅을 밟 게 된 튀르크계 무슬림들은 그들의 성실함과 뛰어난 사업 수단으 로 한국 사회의 정착 속도를 높였다. 그러나 이들 역시 고려시대 와 마찬가지로 당시 한국을 지배하던 일본 세력과 정치적 결탁을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만 취하는 존재로서, 한국 사회에 긍정

48 정수일, 『한국 속의 세계 下』, 138.

적 이미지를 주지 못했다. 그 결과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이 패망하고 한국 땅을 떠날 때, 튀르크계 무슬림들 역시 쫓겨나다시피 제3국으로 자신들의 살길을 찾아 떠났다. 이렇게 지배 계층과 손을 잡고 피지배민족이었던 한국인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 준 무슬림들은 20세기 초 한국 선교를 다시 실패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 변화가 시작되면서 국내 이슬람 공동체는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21세기 외국 무슬림들에 의한 선교활동보다 내국인 무슬림들의 자체적인 포교 활동을 통해 그들의 교세가 증가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필자가 2012년 만난 49명의 내국인 무슬림 설문을 기초로 해서 이 공동체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인 무슬림 공동체는 우리가 예상하듯이 저소득/저학력자들의 개종사례보다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잘 교육 받은 중산층이 이슬람 신앙에 영향을 받고 무슬림이 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이들의 개종 시기는 청소년기보다 훨씬 늦은 20대 후반이다.

셋째, 결혼과 개종의 상관관계에서 내국인 무슬림들은 결혼이 그들의 종교를 바꾸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 무슬림과 한국인의 국제결혼이 국내 무슬림 공동체의 증가 원인으로 보는 것은 설부른 결론이다.

넷째, 내국인 무슬림들의 개종전 종교를 물었을 때, 74%의 응답자가 그들의 이전 종교를 기독교[개신교와 카톨릭 포함]라

www.kci.go.kr

고 응답했다. 즉, 유신론자인 기독교인이 유일신 종교인 이슬람으로 개종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섯째,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순간적 감정보다는 오랜 시간 이슬람을 연구하고, 무슬림 공동체를 관찰 한 후 이슬람에 입교한다.

이러한 내국인 무슬림 공동체를 향한 한국 교회의 선교적 접근 방법을 정리해 보면, 우선 기독교 내부적으로 “교회 갱신 운동 (Church Renewal Movement)”이 무엇보다도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필자의 설문 응답자 74%가 이슬람으로 개종하기 전 자신들의 종교 정체성을 “기독교”라고 응답했다. 이들의 개종 제1차적 원인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성(聖)스러워야 하는 교회가 돈(money), 권력(power), 성(sex)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기독교의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 다른 유일신 사상을 찾아 영적 방황을 하던 중 이슬람을 만나고 개종한 사례이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국내 이슬람 선교를 위해 먼저 교회의 비본질적인 구습(舊習)을 제거하기 위해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포스트모던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는 공동체 정신의 부재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이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운동을 주도해 나가기보다, 일주일에 한번 성도들에게 좋은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만족하려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 정신을 잃어버리고, 좋은 예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교 단체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실증을 느낀 유일신주의

www.kci.go.kr

자들은 좀 더 종교적으로 엄격하고, 엄숙한 분위기의 이슬람 예배를 더 가치 있게 여기며 무슬림 공동체의 예배 행위에서 영적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본질에 기초한 “예배 갱신”과 아울러 하나님 나라 공동체 정신의 회복을 통해 교회로부터 이탈하는 교회 내 아웃사이더(outsider)들을 영적으로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2014년 청어람 대표 양희송은 ‘가나안 성도’에 대해 언급하며, 21세기 한국 교회가 직면한 내부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대안까지 제시했다. 가나안 성도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기독교인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다. 오늘날 가나안 성도의 교세는 약 100만 명에 이른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구체적이 이유를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공동체’라고 답했다.⁴⁹ 이들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그 살아계신 유일신 하나님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기에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있다. 필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들이 자신의 종교 정체성을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바꿀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다. 이들의 종교 정체성 이동을 막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교회 공동체가 그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함께 연대해야 할 것이다.

교회를 떠나 이슬람 사원으로 이동해 가는 개종자들을 막기 위해 기독교 학자들 역시 선교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을 바로 이해하고, 스스로 신앙적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이슬람 교육과 관련 서적 출판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는 극단주의적 이슬람 신앙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무슬

49 양희송, 『가나안 성도 교회밖 신앙』(서울: 포이에마, 2014), 35.

림들의 테러 행위에 초점을 맞춰 이슬람을 한국 교계에 소개해 왔다. 그러나 모든 종교에는 양면성이 있다. 타종교로부터 배울 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타종교에서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문제가 있다. 한국 교계의 일부 리더자들은 이러한 양면성을 무시하고, ‘이슬라모포비아’ 적 관점으로 이슬람의 부정적인 요소들만 부각시켜 이슬람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일부 ‘가나안 성도들’이 기독교에 대한 실망감으로 새로운 유일신 종교를 찾아 나섰을 때, 이들은 이슬람을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오랜 시간 무슬림 공동체에 양해를 얻어 실험적으로 예배 참여하며 이슬람을 배웠다. 그때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기독교를 통해 배워 온 이슬람과 자신들이 직접 탐구한 이슬람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기독교에 반감은 더욱 극대화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기독교 학자들은 이슬람 신앙과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성도(聖徒) 스스로 종교 다원주의 사회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내국인 무슬림 공동체를 위한 전문 내국인 선교사 양성이 절실하다. 필자는 지속적인 이슬람 성원 방문과 인터넷 카페, “이슬람으로 하나되는 세계”를 관찰하며 내국인 무슬림 공동체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다. 내국인 무슬림들은 지난 2012년부터 국내 성원들을 순회하며 남성 무슬림 모임을 시작했고, 최근 여성 무슬림들의 신앙 성숙을 위한 ‘아랍어 꾸란’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 매주 토요일 ‘살람 누리(*Salam Nuri*)’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무슬림과 비무슬림들이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며, 무슬림 전문 전도자들이 짝을 이루어 전국 성원들을 투어하며 활발한 포교 활동을

별이고 있다. 그 결과 내국인 이슬람 개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개종한 내국인 무슬림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심어 주기 위한 전문 선교사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북아프리카 선교사 출신인 케빈 크리스슨 (Kevin Greeson)은 효과적인 무슬림 전도를 위한 ‘낙타 전도법’을 소개한다. 이 전도법은 꾸란을 중심으로 무슬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소개하며 전도하는 방법이다.⁵⁰ 이처럼 건강한 무슬림 선교적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무슬림을 사랑하고, 꾸란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 내국인 사역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내국인 무슬림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펼치는 선교사들은 전무후무하다. 필자가 만나본 개종 무슬림들은 이슬람 신앙인들이지만 그들의 경전인 꾸란과 이슬람 신앙, 그리고 무슬림 공동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다. 이들과 함께 꾸란을 읽고, 이슬람 신앙과 기독교를 비교하고, 무슬림 공동체를 연구한다면 이들의 재개종(re-convert) 현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적으로 필자와 함께 꾸란-복음서 읽기를 병행하고 있는 내국인 무슬림들은 이슬람 신앙에 대한 회의와 함께 최근 자신의 종교 정체성 변화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점점 증가하는 내국인 무슬림들과 직접 접촉하며 이들의 가치관을 꾸란(Qur'an)적 세계관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전환 시킬 전문 선교 인력 양성에 한국 교회는 힘을 쏟아야 한다.

50 케빈 크리스슨. 이명준 역, 『모슬렘을 위한 낙타 전도법(The Camel: how Muslim are coming to faith in Christ)』, (서울: 요단, 2009), 61.

V. 나가는 말

한국 경제 성장과 더불어 저임금 노동력 확보를 위한 외국 인력 유입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약 79,388명이었던 국내 체류 무슬림의 수는 6년 뒤인 2015년 약 55,000명 증가한 135,485명으로 집계되었다.⁵¹ 이러한 외국인 무슬림 증가 현상과 발맞춰 내국인 무슬림 숫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한국 기독교는 지속되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과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심화로 1995년 이후 정체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슬람은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 천주교, 불교를 잇는 제4의 종교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교회를 이탈한 가나안 성도들이 또 다른 유일신 신앙인 이슬람에 관심을 가지고 개종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 교회는 이를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이슬람 선교에 있어 방어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즉, 외국 무슬림들의 한국 유입을 막고, ‘이슬람포비아 운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 이슬람 혐오증을 유발시키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서 한국 교회의 건강한 이슬람 선교를 주장하고 싶다.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비 신앙적 행동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성도들을 막기 위해 교회 갱신을 무엇보다도 강조한다. 아울러, 이슬람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통해 이슬람을 바로 알고, 성도 개개인이 바른 신앙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증가하는 내국인 무슬림 공동체를 위해 전문인 선

51 안정국, “한국 이슬람의 현황과 종파 분화,” 「인문과학연구논총」, no. 36 (2015): 158.

교사를 양성하고 이들이 내국인 무슬림들과 접촉해 함께 꾸란 읽으며 이슬람의 실체를 알고, 아울러 복음의 가치성을 바로 인식해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로 인도해야 한다. 더 이상 내국인 무슬림 성장을 수동적이거나 방어적인 자세로 접근하지 말고,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슬람 선교를 준비하고, 내국인 무슬림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끌어 줄 책임이 한국 교회에 있다.

■ 참고문헌

- 권지윤. “한국의 이슬람.”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 2, no.1 (2009): 53-76.
- 김수완. “한국인의 아랍, 이슬람 이미지 및 관련 언론보도 인식 연구.” 『한국 중동학회 논총』 vol. 57 (2016): 193-213.
- 김창석. “8-10세기 이슬람 제종족의 신라 來往(내왕)과 그 배경.” 『한국 고대사 연구』 no. 44 (2006): 93-126.
- 명지대학교 중동문제 연구소. 『IS를 말하다』.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5.
- 박성수. “한국 무슬림들의 개종 사례 연구.” 『선교신학』 no. 38 (2015): 171-199.
- 서정민. 『이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서울: 시공사, 2015.
- 안상준. “한국 개신교인의 이슬람에 대한 인식과 대 이슬람권 선교 정책: 중동지역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문학박사 학위 논문, 2008.
- 안정국. “한국 이슬람의 현황과 종파 분화.” 『인문과학연구논총』 no. 36 (2015): 155-181.
- 양희송. 『가나안 성도 교회밖 신앙』. 서울: 포이에마, 2014.
- 유동식. 『한국 종교와 기독교』.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2006.
- 유왕중, 김효정, 안정국. “남아시아 출신 코슬림(Koslim)의 한국 사회 정착 및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중동연구』 제 29권 제1호, (2010), 151-186.
- 케빈 그리슨. 이명준 역. 『모슬렘을 위한 낙타 전도법(*The Camel: how Muslimare coming to faith in Christ*)』 서울: 요단, 2009.

- 이정순. 『21세기 한국 이슬람의 어제와 오늘』. 서울: 도서출판사 대서, 2012.
- 이희수 외 11명. 『이슬람: 9/11 테러와 이슬람 세계 이해하기』. 서울: 청아 출판사, 2001.
- 이희수. 『어린이 이슬람 바로 알기』. 서울: 청솔 출판사, 2001.
『이슬람과 문화』. 서울: 살림, 2003.
『이희수 교수의 세계 문화 기행』. 서울: 일빛, 2003.
『이슬람 학교 1, 2』. 서울: 청아, 2015.
『이슬람과 한국 문화: 걸프 해에서 경주까지 1,200년 교류사』. 서울: 청아 출판사, 2012.
“이슬람권의 한국사 관련 자료 소개.” 『역사와 현실』 no. 8 (1992): 367-371.
- 장후세인. 『이슬람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 서울: 젠나무민북스, 2012.
- 정수일. 『한국 속의 세계 下』. 서울: 창비, 2005.
- 정은주 외 2명. 『비단길에서 만난 세계사』. 서울: 창비, 2005.
- 조희선 외 4명. “한국 이주 무슬림의 혼인 현황과 정착 과정 연구.” 『지중해지역 연구』 제11권 제13호 (2009): 79-115
- _____. “코슬림 (Koslim: 한국 이주 무슬림 2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대학생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 14권 제1호, (2010): 277-308.
- 최남선. 『조선상식문답』 서울: 삼성문화재단, 1985.
- 타머 무사.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살아가기: 한국 무슬림의 이슬람화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한국 이슬람 중앙회. 『Islam in Korea』. 서울: KMF, 2009.
- Arnold, Thomas. *The Spread of Islam in in the World: A History of Peaceful Preaching* (2nd ed.). New Delhi: Goodword Books, 2001.
- Broomball, Marshall. *Islam in China*. NJ: Gorgias Press, 2007.
- Coe, George. *The Psychology of Relig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17.
- Grayson, James H. *Korea – A Religious History*. Abingdon: Routledge Curzon, 2002.
- Hall, Granville S. *Adolescence: Its Psychology and its Relations to Physiology, anthropology, sociology, sex, crime, religion and education*. London: Appleton and Company, 1915.
- Köse, Ali. *Conversion to Islam*. London and NY: Kegan Paul International, 1996.
- Lofland, John and Skonovd Norman. “Conversion Motif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20 (1981): 373–385.
- Mehmegolu, Ali and Kim, Heonchoul. “Conversion Motifs: A Study of Present-day South Korean Converts to Islam.” *Journal of Academic Studies*, vol. 4 (2002): 126–133.
- Park, Sungsu. “Islamic *Da’wah* in Korea.” *Ph.D. Diss.*: Asbury Theological Seminary, 2013.
- Paloutzian, Raymond F. *Invitation to the Psychology of Religion*. Ill: Scott, Foresman, and Co., 1983.
- Poston, Larry. *Islamic Da’wah in the West*. NY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ratt, James. *Religious Consciousness: A Psychological Study*. NY: Macmillan, 1926.

Starbuck, Edwin. *The Psychology of Religion*. London: The Walter Scott Publishing Co., 1908.

Weatherford, Jack. *Genghis Khan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NY: Crown, 2004.

Yun, Seung-yong ed. *Religious Culture in Korea*. NJ & Seoul: Hollym International Corp., 1997.

2012년 4월 21일 이태원 중앙성원에서 바시르(Basir) 인터뷰

2012년 5월 14일 이태원 이슬람 성원에서 에미르(Emir) 인터뷰

<https://www.youtube.com/watch?v=JvLdlYXJsfQ> (2017년 1월 10일 접근), <https://www.youtube.com/watch?v=Agr9XsIrCgY> (2017년 1월 10일 접근);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이만석-65734.html> (2017년 1월 10일 접근);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88122/20160101/유해석-칼럼-유럽에서-이슬람-인구-증가로-나타난-다양한-문제들.htm> (2017년 1월 10일 접근).

<http://www.deulsor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02>. (2017년 1월 10일 접근).

<http://features.pewforum.org/muslim-population/growth.php> (Last accessed on Dec. 15, 2012).

<http://cafe.naver.com/islamworld>; <http://chatislamonline.org/ko/>; (2017년 1월 10일 접근).

■ ABSTRACT

Missiological Understanding of Islamic *Da'wah* in South Korea

: Past and Present Korean Muslim Community

Sung Su Park

Islam like Buddhism and Christianity is a proselytizing religion, which has quickly expanded its religious boundaries since its beginning from the Arabian Peninsula in the 7th century to the rest of the world. By expanding to Africa, Europe, and Asia via the work of imams and merchants Islam became a world religion in a short time. Islam reached Korea at the end of the 9th century during the Shilla Dynasty, but its religious influence was insignificant back then. STATISTICS KOREA (2015) reported that Christianity and Buddhism have become two largest religious groups, each having 13,566,000 and 7,619,000 members respectively. Among Christians, Protestants (9,676,000) are about 2.5 times more numerous than Catholics (389,000). STATISTICS KOREA (2015) did not include Islam in its survey, but estimated

www.kci.go.kr

that there are about 100,000 Muslims in Korea. Albeit small in number, Muslim population in South Korea has been steadily growing since 1950s, and numerous Koreans converted to Islam even after a flood of negative media coverage about Islam through the formation of the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ISIL, ISIS or Daesh) in 2014. I am concerned about Islam and its explosive growth of Muslim population in the 21st century around the world and particularly in South Korea. This paper suggests missiological approaches and reasons to better understand the Muslim community in Korea before sharing the message of the kingdom of God.

Keywords: Religions in Korea, Islam in Korea, Religious conversion, Muslims in Korea, Muslim convert, Typology of conversion motifs